

서태지와 아이들의 사회 향한 발언

94.8.16

3집 신곡...통일열망 담은 '발해를...' 등 참신

안정숙 기자

“늑들 눈 깜짝할 사이야, 간판이 사람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겠니? ... 공부해, 공부, 공부!” 칠판 앞에 선 교사 역 배우가 소리를 칠 때, 객석의 10대들이 맞받아 소리를 질렀다. “대학 안 가!” 서태지와 아이들은 그 칠판을 뚫고 무대 중앙으로 뛰어나와 신곡 〈교실 이데아〉를 부르기 시작했다.

“됐어 이제 / 그런 가르침은 됐어 그걸로 족해 / 매일 아침 일곱시 삼십분까지 우릴 조그만 교실로 몰아넣고 / 전국 구백만의 아이들의 머리 속에 모두 똑같은 것만 집어넣고 있어...”

13~15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서태지와 아이들은 음악으로 사회적 발언을 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제

3집 신곡발표회를 겸한 이들의 콘서트는 3일 8천여 좌석을 가득 채운 청중의 열광 속에 치러졌다.

〈난 알아요〉를 한국 랩송풍의 신호탄으로 만들고, 〈하여가〉의 형식실험을 추진한 이 대종은 이제 한국 가요시장의 ‘주류’로 자리잡았다. 따라서 이들이 서태지들이 3집에서 시도한 변신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가요계의 풍향 변화에까지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그 변신은 국내에서 아직 대중화에 성공한 적 없는 ‘메탈’ 양식의 공격성과 결합한 〈교실 이데아〉 등이 보여준 노랫말의 현실비판성으로 정리된다. 이번 음반이 성공할 경우, 사랑노래가 석권하고 있는 대중가요 시장에서 ‘현실비판적 발언’이 하나의 유행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서태지와 아이들은 이 콘서트의



서태지와 아이들은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노래를 통한 사회적 발언’을 시작했다. 연하

마지막 곡으로 3집의 표제곡 〈발해를 꿈꾸며〉를 불렀다. “기성세대의 통일에 대한 희망이 점점 흐려지는 것 같다”며 서태지는 ‘통일 소망을 담은 노래’라고 소개했다.

노래가 끝날 즈음, 가로 21m, 세로 13m, 높이 9m의 무대 전면에 대형 태극기가 서서히 올랐다. 서태지들의 민족주의에는 ‘올터너티브 록’의 음향, 격렬한 춤과 무대감독을 맡은 일본인 조명전문가 가토의 조명이 채색되어 있었다.